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트럼프 정책 초기 승자는 인프라

트럼프 취임 이후 첫 거래일 가장 아웃퍼폼한 섹터는 산업재. S&P500 지수가 전일대비 0.88% 상승한 가운데 산업재 섹터는 2.03% 상승. 뒤이어 부동산(+1.8%), 헬스케어(+1.7%), 유틸리티(+1.6%) 아웃퍼폼. 공통점은 1) 인프라 관련 섹터(산업재, 유틸리티)이거나, 2) 금리 민감 섹터(헬스케어, 부동산)라는 것

1) S&P500 종목별로는 비스트라, NRG 에너지, 쿠팡 서비스와 같이 에너지,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이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2) 중소형 종목까지 확장하면, SMR, 우주, 양자컴퓨터, 드론 등 신산업 테마주들이 10~40%씩 급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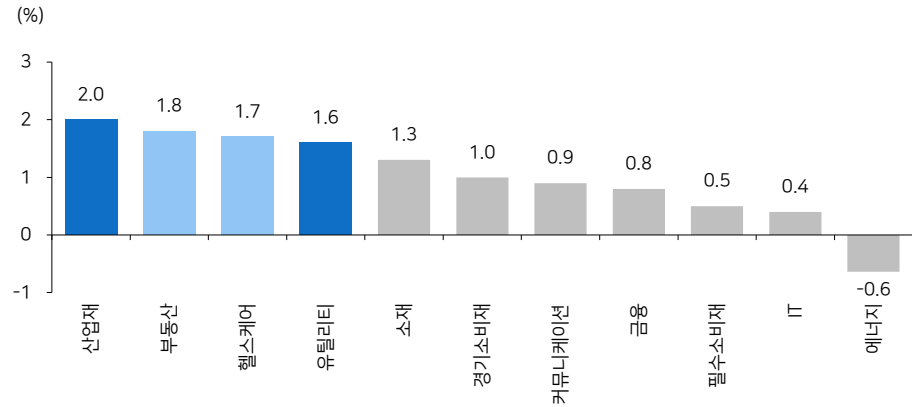
1) 전자의 주가는 행정명령 영향으로 파악. 어제 정리한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산업 측면에서 특징은 에너지 산업 지원에 집중되어있다는 점.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미국 내 에너지 자립 위한 인프라 산업 투자 가속화 관련 내용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

2) 후자의 주가는 우려하던 관세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금리와 투자심리에 민감한 중소형주, 특히 신산업 테마주들이 특별한 새로운 모멘텀 없이 동반 상승한 점은 관세 및 인플레이와 연결고리에 있는 투자심리 회복에 기인했다고 판단. 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6bp나 하락한 4.57%로 마감

취임 둘째날에도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 트럼프가 스타게이트를 언급하며 AI 인프라에 수년간 최대 5,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스타게이트의 주체 중 하나인 오라클은 장중 7.2% 장마감 이후 4.5% 추가 상승. 이후 관련 행정명령 등 정책의 추가 등장 가능성에 주목. 단기적으로는 다음주부터 앞두고 있는 AI 인프라(CSP,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기대

관세에 대한 우려는 기대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해진 것이 아직 없음. 금리 민감 중소형주, 신산업 테마는 관련 변동성(관세 외 2/3 QRA도 주목) 특히 주시

그림1 1월 21일 S&P500 수익률 상위 종목 및 섹터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